

의상흥미의 국제간 비교 연구

- 한국, 일본, 대만 여대생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생활문화대학 교수

이 인 자

I. 서 론

오늘날 의복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의복행동은 환경적·심리적 여러 요인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7 8 9 10)}

한국에서도 1974년 이후 학회지나 학위 논문, 기타 각 대학의 교수 논문집에 발표되는 상당수의 논문이 의복행동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많은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²⁾

그러나 대부분의 문화나 국제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각할 때에 학문의 영역도 국제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학분야에서의 국제간의 비교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는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의상흥미를 조사하여 이들 3개국간에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일본, 대만 여대생들의 의상흥미도를

조사한다.

2. 이들 세 나라간에 의상흥미 영역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연구 결과는 학계에 자료로 제공하며 차후 좀 더 많은 나라들간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는다.

II. 문헌적 고찰

1. 의상흥미의 의미와 측정

Rosencranz는 의상흥미란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 손질 또는 이와 관계되는 활동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나 금전, 에너지 등을 많이 기울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¹²⁾ 그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복에 대한 흥미는 젊은 여성일수록 높으며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개인의 의복에 대한 흥미의 많고 적음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의 옷을 선택할 기회가 많을수록 증가한다.¹³⁾

1) 가정학 연구의 최신 정보 II, 의류학, pp. 176~178.

2) 간 문자·이 인자, "의상흥미와 직업간의 상관 연구."

7) 이 인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의 학급 내 인기도와 의상 흥미간의 상관 연구.

8) 이 인자, "정상인과 정신 장애자의 욕구와 의복 행동간의 상관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4.

9) Davis, Leslie 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 A Review", *HERJ.*, Vol. 12, No. 3, 1984, pp. 325~339.

10) Drake M. F, and Ford I. 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ERJ.*, Vol. 7, No. 5, 1979, pp. 283~291.

11) Perry M.O., H.G. Schutg, M.H. Rucker, Clothing Interest, self-Actualization and Demographic Variables, *HERJ.*, Vol. 119, 1983.

12) Rocenerang M.L., *Clothing Concept*, NY : Macmillan Co., 1972, pp. 92~93.

13) Ryan M.S., "Psychological Effects of Clothing", Part III : Report of Interviews with College Women, No, 900, 1953.

이와 같은 연구보고들은 의복의 일반적인 흥미나 관심과 기타 변인들간의 관계이나 연구자는 의복에 대한 흥미라고 하더라도 몇 개의 영역이 있으리라는 가정하에 “의상의 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⁵⁾ 그 결과 5개의 의상흥미 영역이 선정되었다.

2. 의상흥미와 기타 변인간의 관계

「의상흥미도 검사」를 사용하여 연구한 기타 변인간의 관계를 보면 직업과의 관계에서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복 구성에 관한 흥미가 높았으며 예능계 사람은 의복 디자인과 쇼핑에 관한 흥미가 높았고 의사나 교사는 전체적으로 의상흥미가 낮았다.²⁾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격 특성과 의상흥미 영역간의 관계 연구에서도 의복 구성 및 제작에 흥미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과 정서적 안전성, 자신감이 높았고 디자인과 유행에 관한 흥미가 높은 사람은 정서적 안정성이 낮았다.⁴⁾

의상흥미와 배경간의 관계를 보면 20~30대 여성들은 의복의 유행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고 의류 쇼핑에는 특히 흥미가 있거나 의복 구성 및 의류 정리에 관심이 적었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의류 제작이나 장식품 만드는 데 흥미가 많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흥미가 높았다. 수입과의 관계에서는 최고 소득 수준보다는 바로 아래 수준이 쇼핑에 대한 흥미가 제일 높았다.⁶⁾ 의상흥미와 자아실현도와 관계에서는 자아실현도가 높을수록 의복 정리에 관한 흥미가 높고 구매에 대한 흥미가 낮았다.³⁾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

국적	대상	사례수	계
한국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173명	
일본	오자노미소대학 문화여자대학 오오쓰마여자대학	163명	
대만	대만사범대학 실천가정전과대학	63명	399명

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의상흥미도 측정지(3)”을 양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상의 어느 분야에 대하여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① 의복 구성 및 제작에 관한 흥미, ② 의복 디자인 및 유행에 관한 흥미, ③ 의류 및 악세서리의 쇼핑에 관한 흥미, ④ 의류 계획이나 정리에 관한 흥미, ⑤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관한 흥미 등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총 66개의 문항으로서 5단계 평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주 그렇다에 1점, 그렇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아니다에 4점, 전혀 아니다에 5점의 가중치를 부가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문항의 흥미가 많음을 뜻한다.

3. 자료분석

건국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 mean, SD, frequency, x²-test, F-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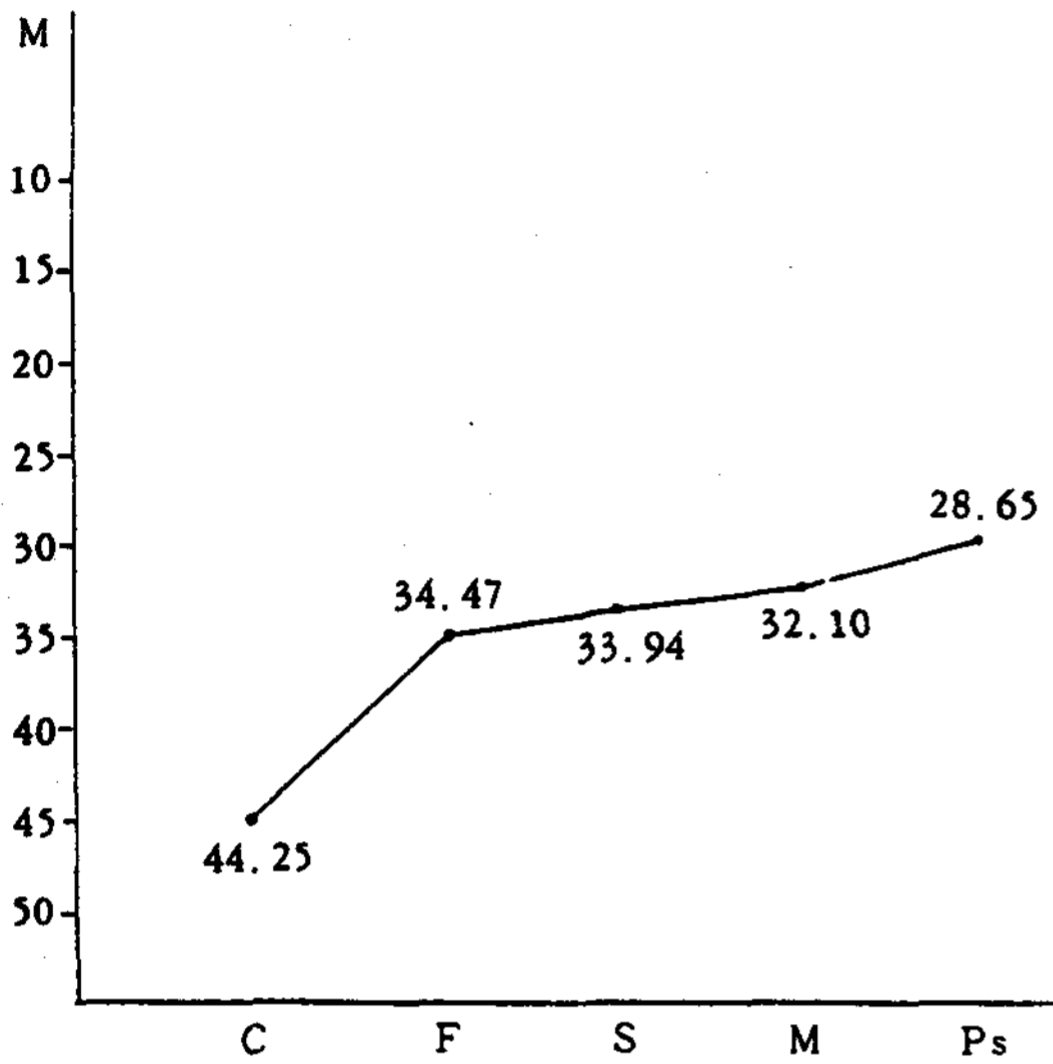
1. 의상흥미도 비교

그림 1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의상흥미도 비교이다. 5개의 의상흥미 중 가장 높은 것은 의복의

3) 김 용숙, “자아실현도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의상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제25권 3호.
 4) 유 관순, “성격과 의상 흥미간의 상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5) 이 인자, “의상의 흥미도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생활 문화대학 연구 보고 제3집 (1980), pp. 32~33.
 6) 이 이인, “의상흥미와 배경간의 상관 연구”, 건국 대학교 생활 문화연구소 연구 보고, 제4집, 1980. pp. 51~65.

사회·심리적 역할에 관한 흥미이고 다음이 의류 정리에 관한 흥미이며 흥미가 가장 낮은 것은 의류제작에 관한 흥미이다.

〈그림 1〉 전체 대상의 의상흥미도



이는 선행 연구에서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대한 흥미는 높으나 의복 구성에 관한 흥미는 낮다고 한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서 요즈음 젊은이는 나라에 구별 없이 옷 만드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의복을 통하여 반영되는 개인의 성격, 감정상태, 사회적 지위 등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의 사회·심리적 측면 연구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각국의 의상흥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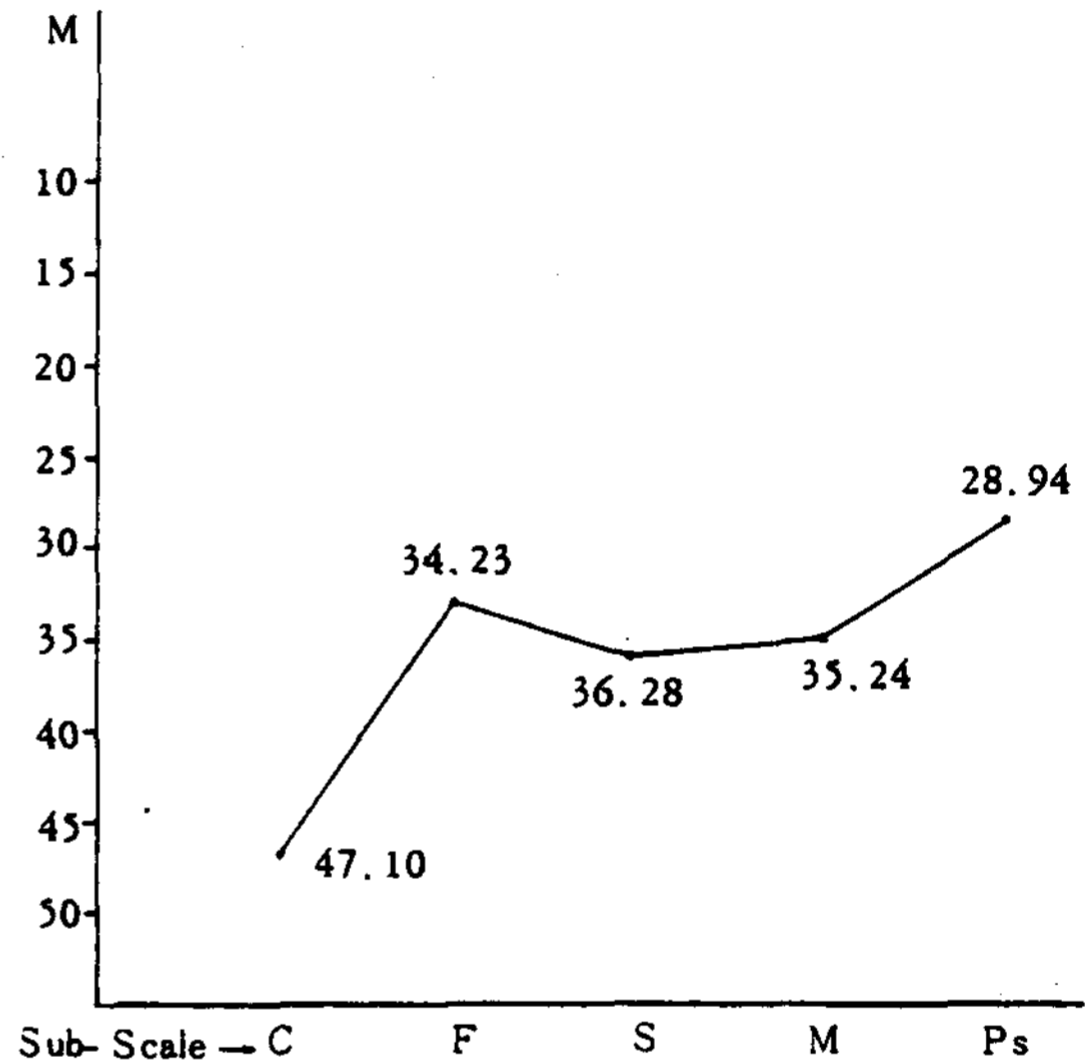
그림 2~4는 각 나라의 의상흥미 순위이다.

한국은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Psychological Aspect가 1순위이다. 다음이 Fashion에 대한 흥미이고 3위가 Management 4위가 Shopping이며 Construction에 대한 흥미는 아주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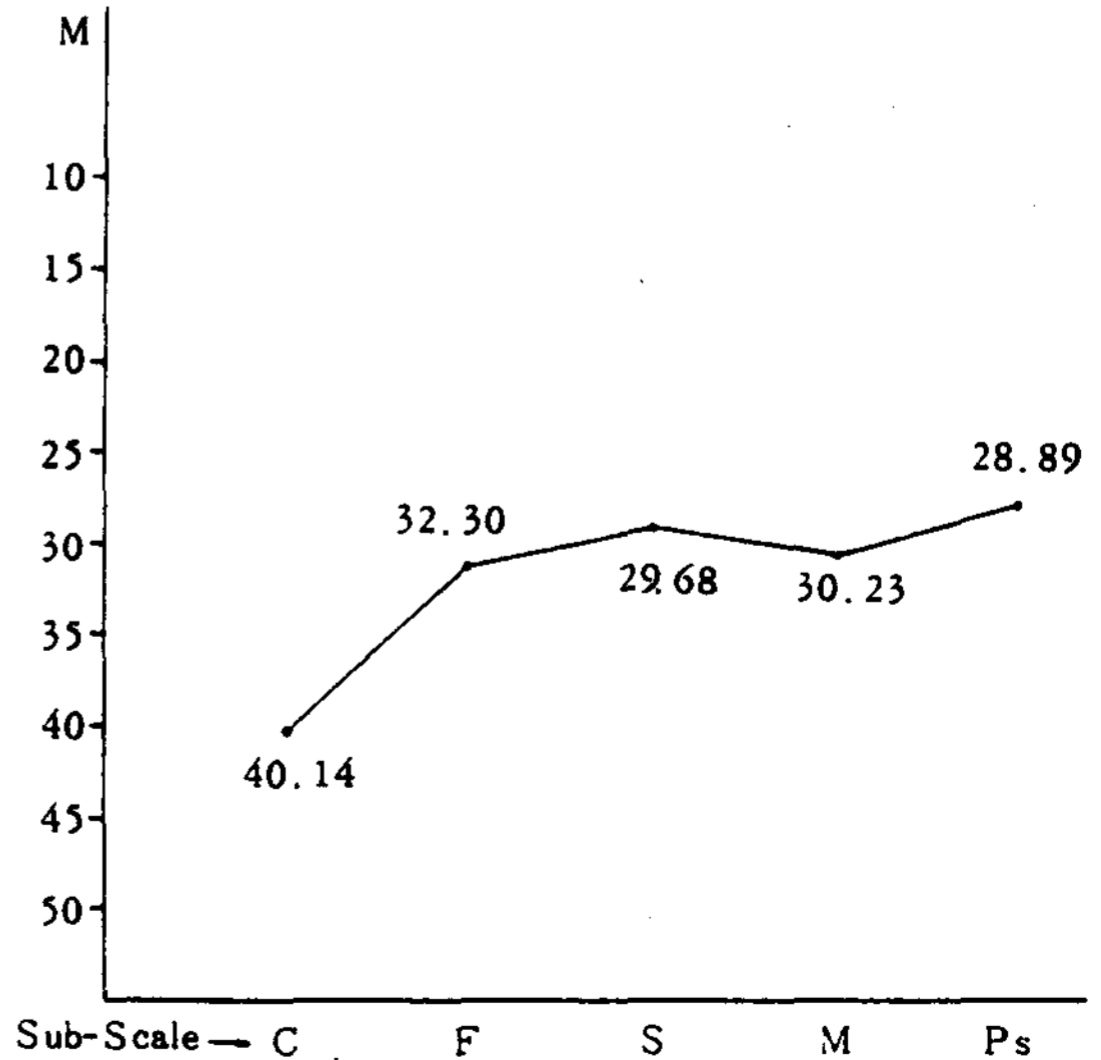
Fashion과 Design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은 한국이 섬유 산업의 발달과 서울이 국제적인 유행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생활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이 아닌가 하고 해석된다.

일본 여대생의 의상흥미 순위는 그림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Psychological Aspect가 1순위이고 다음이 Shopping이며 3위가 Management, 4위가 Fashion, 5위가 Construction이다. Shopping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은 일본이 국민 소득이 높고 의복 상품이 다양하여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해석되며 Management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일본인의 국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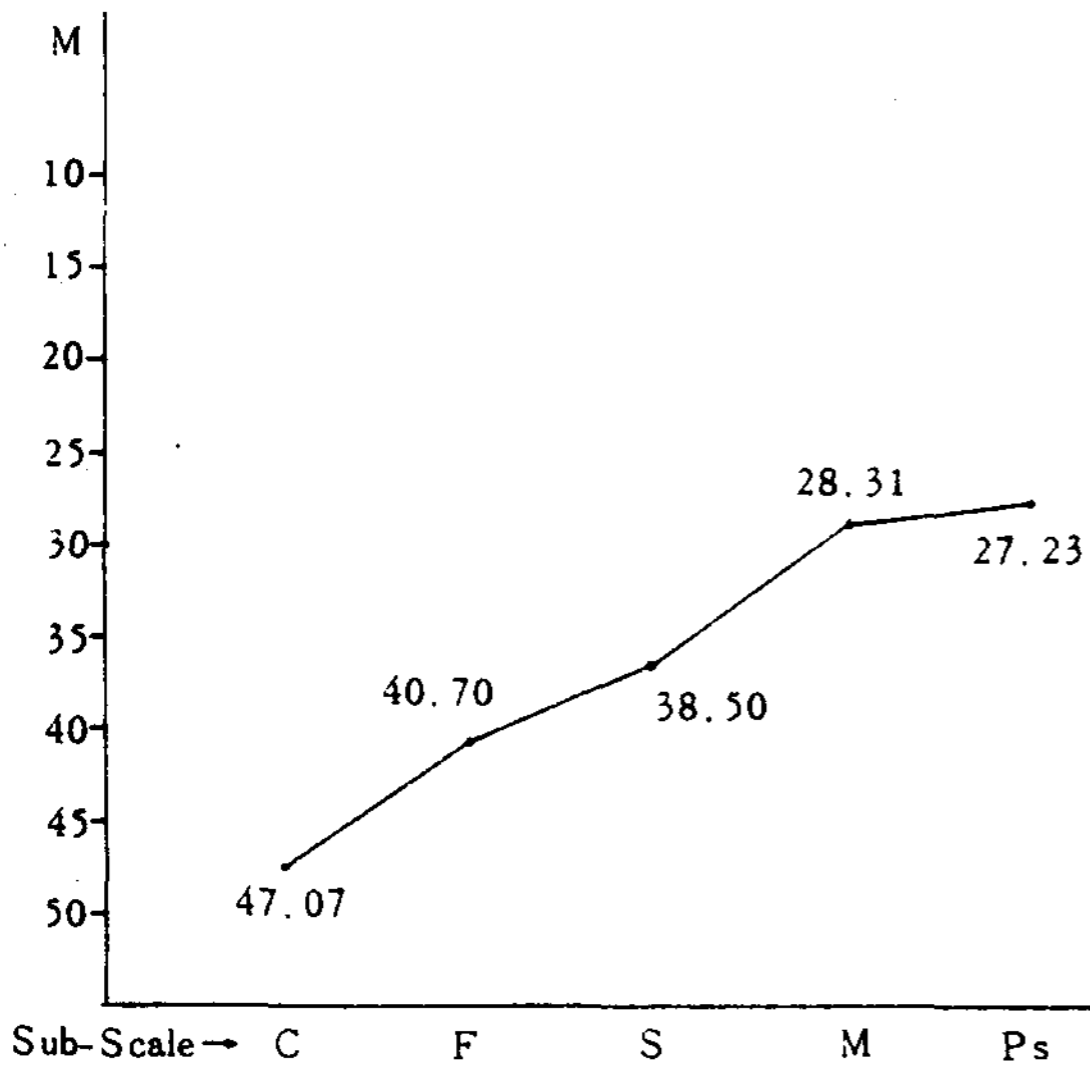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의상흥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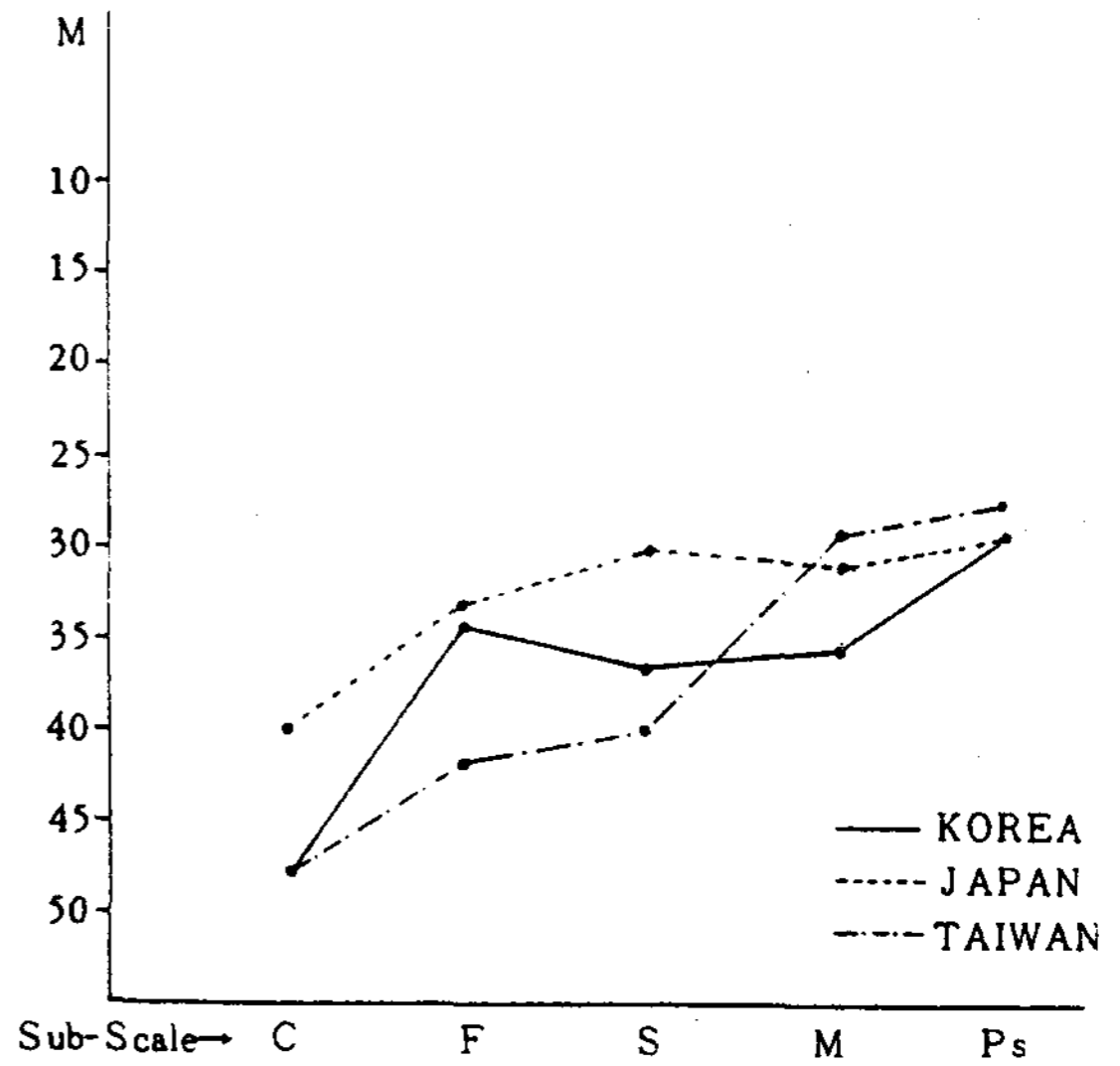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의상흥미도



〈그림 4〉 대만의 의상흥미도



〈그림 5〉 국제간 비교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대만은 1위가 Psychological Aspect이고 2위가 Management이며 3위가 Shopping이고 4위가 Fashion, 5위가 Construction이다. 대만이 Management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은 것은 대만의 여대생은 상당히 깔끔하다고 판단되며 중국인들이 의복의 Management를 잘 안할 것이라고 생각해 온 일반적인 생각을 바꾸어 놓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여기에 비해 Shopping과 Fashion, Construction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이들이 의생활보다는 식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국민성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의상흥미의 국제간 비교

표 2와 그림 5는 의상흥미의 국제간 점수를 F-test에 의해 유의차 검증을 한 것이다.

- Construction- 이것은 한국과 대만이 비슷하고 일본이 가장 높다. 의복 구성에 대한 흥미를 세 나라간에 비교해 보면 일본이 Clothing-Construction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Fashion과 Design- 세 나라 비교에서 일본이 가장 높고 다음이 한국이며 대만은 월등히 낮다. 이는 동경과 서울은 세계적인 유행의 거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Shopping- 일본이 가장 높고 한국이 다음이며 대만이 가장 낮다.

- Management- 대만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본이며 한국이 가장 낮다.

- Psychological- 세 나라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표 2〉 의상흥미의 F-test 결과

Variable Sub-Scale	한 국		일 본		대 만		F
	M	SD	M	SD	M	SD	
C	47.10	11.64	40.14	10.07	47.07	11.67	19.18***
F	34.23	9.18	32.30	7.84	40.76	10.08	21.01***
S	36.28	8.37	29.68	7.67	38.50	8.66	39.28***
M	35.24	6.78	30.23	6.33	28.31	7.30	35.60***
Ps	28.94	6.17	28.89	5.71	27.23	6.26	2.09

*** p < 0.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대만 여대생의 의상흥미를 조사하고 세 나라간에 의상흥미 영역의 차이를 분석하여 국제적인 학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여대생 173명, 일본 여대생 163명, 대만 63명을 대상으로 이인자의 “의상흥미도 측정지”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의상흥미 영역 중 가장 흥미가 높은 것은 의복의 사회·심리적 역할에 관한

흥미이다.

둘째, 의류의 제작 및 구성에 관한 흥미가 가장 낮았다.

셋째, Fashion과 Design에 관한 흥미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높고 대만이 월등히 낮다.

넷째, Shopping에 관한 흥미는 일본이 아주 높고 대만은 제일 낮았다.

다섯째, Management에 대한 흥미는 대만이 아주 높고 일본도 상당히 높았으나 한국은 제일 낮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일본의 여대생이 의상흥미가 높고 다음이 한국이며 대만이 낮았다.